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출범

지역사회에 중추적 역할과 자긍심을 높힐 수 있을 것

목포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유진하)는 숙원사업이자 중점사업인 장학재단 설립을 9월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동문들과 지역 사회의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장학재단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총동문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이지호(미술/82) 부회장과 박종규(무역/79) 부회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유진하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에서 매년 10명씩 20여 년간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며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채 총동문회의 부족한 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

하다 보니 양적, 질적 확대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장학재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그동안 모교 후배들에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지역사회에 중추적 역할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권철 사무처장은 “그동안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역대 회장과 사무처, 그리고 함께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며 “장학재단은 우리 모두 노력의 결과물이며 동문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학재단 문의사항은 총동문회 사무처 061-284-5064로 연락하면 된다.

유진하 신임회장 취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황리에 개최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1월 27일 상그리아 호텔에서 ‘2012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2011 정기총회,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만찬 식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이윤선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내빈과 동문들이 참석했다.

조용준(국문/91) 홍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총회에서는 동문회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에 이어 2011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선임된 유진하(무역/79) 동문을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임회장인 정영덕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4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과 목포대학교 홍보를 위한 HBC가요 콘서트 개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지역주민과 총동문회가 함께하는 친선골프대회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신임회장인 유진하 동문의 탁월한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뜨거운 축하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어 신임회장은 정영덕 전임회장에게 지난 2년간의 노고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유진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들이 해왔던 성과를 토대로 신명나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장학재단 설립과 동문회 이사들의 양적증가, 재경동문회와 연합동문회의 유대강화, 의과대학 유지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언제나 열린 자세로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기식(체육/91)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을 끝으로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했다.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시대를 열다

교육지원센터 기공식 열어. 2013년 준공 예정



목포대학교는 지난 4월 20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캠퍼스 신축부지에서 교육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교육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남도청과 인접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메카로 선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녹색 전담을 이끌어갈 창업 지원 및 기술이전을 통한 고용창출 등 산·학

협력시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정부 비축토지 사용예약승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용 승인된 토지 13,750㎡에 이번 교육지원센터를 지상 7층, 건물면적 6,213.58㎡, 총공사비 75억원으로 오는 2013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제8회 동문친선골프대회

제7회 까지 개최한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목포대학교와 동문차원을 넘어 지역민과 지역케이블 TV 와 함께하고, 지역과 모교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_ 2012. 9. 8 토요일 장소_ 무안 C.C

• 대 상 : 동문, 목포대학교 교수및 교직원, 기업및 아마추어골프, 지역민

• 주 관 : HBC 호남방송 • 주 최 :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총동문회

국립목포대학교총동문회 | 골프대회추진위원회
MOKPO NATIONAL UNIVERSITY A GENERAL ALUMNI ASSOCIATION

재경동문 소식

재경동문 새해 첫 시산제 열어



재경목포대학교총동문회에서는 이재정(경제/82)회장 외 11명이 참여해 강촌 검봉산에서 시산제를 열고 동문들의 무사무탈을 빌었다.

시산제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될 무렵에 산악인들이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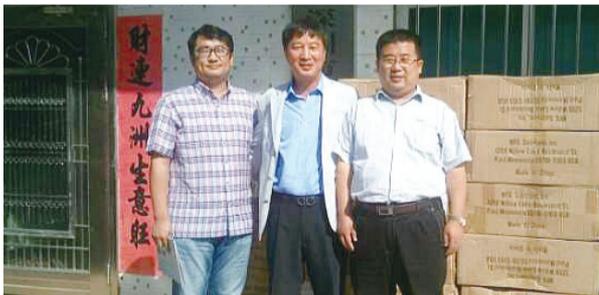
2012년 재경동문회 첫 산행



재경동문회는 지난 3월24일 관악산과 삼성산으로 첫 산행을 시작했다.

재경동문회장 외 23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산행에서 참석자들은 “봄기운과 동문들의 마음에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한 산행이었다”고 밝혔다.

재경동문회장 격려차 심천방문



이재정(경제/82) 재경동문회장이 중국 심천에서 사업하는 이희두(식품공학88)동문을 격려차 방문했다.

제1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재경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5월 11일 송악 파인 스톤 C.C에서 제1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4개팀이 참가한 이번대회의 우승은 박기명(경제/82)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재경동문회는 오는 9월에 열릴 제 8회 동문친선골프대회 우승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임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2월23일 하당일번지에서 30여명의 동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이

새해 첫 이사회 개최

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총동문회 사업계획과 신임 공문 위촉에 관한 건,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새로 참석한 신임이사들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진하 신임회장은 “올해 사업을 통해 목포대학교 동문들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목포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 구성

4월 정기 이사회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4월27일 송원갈비에서 4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장학재단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재단 공동 준비위원장에 이지호(미술/82) 부회장과 박종규(무역/79) 부회장, 준

비위원에 고영근(무역/80) 부회장, 김종국(원육/87) 수석부회장, 박권철(무역/89) 사무처장, 김영호(무역/91) 부회장을 선임했다.

유진하 총동문회장은 “공동 준비위원장과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장학재단 설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봉사활동에 관한 논의와 송림축제, 승달산 클린 등반대회, 골프대회 추진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2012 나도람 축제 봉사활동 참가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4월 27일 애중복지재단에서 개최하는 제32회 나도람 축제에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애중복지재단 운동장에서 진행된 나도람 축제는 올해로 32년째 맞이하며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총동문회에서는 이날 축제에서 행사 보조원으로 행사진행과 배식 등의 활동을 했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6월21일 회오리 천둥

골프대회 추진위 구성

6월 정기 이사회

오리에서 6월 이사회를 갖고 9월에 있을 골프대회 추진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월 8일에 있을 골프대회 준비위원장에 천병식(경영/86) 부회장과 7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동문친선골프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며 작년 골프대회에는 황정호(국문/83)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제20회 송림축제 개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제 20회 송림축제가 지난 5월5일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송림축제에는 유진하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경영행정대학원 동문과 정관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문/칼/럼

부회장 김성석 (조경/82)

철저한 자기 경영으로 꿈을 일구는 사회인이 되자

초에 세운 계획들을 아직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시간은 훌쩍 반년이 지났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한 번쯤 되돌아 보며 여유를 가지고 다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기 시간을 갖는 만큼 인생이 여유로워 짐을 느낍니다.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쉬어질 것입니다.

특히 아무 목적이 없이 시간 때우기 용의 TV 보는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는 일에 습관적인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슨 일을 할지 꿈이 생각해보며 인생의 긴 여정을 위해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계획해 세워 보십시오.

노후가 길어진 만큼 인생의 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 집중력을 높여보자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상황일 때 수면을 줄여가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밤새워 고생했다는 자기만족을 얻을 뿐입니다.

하루 중 뇌가 충분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2~3시

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금방 지치지 않고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경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 간다면 멋진 인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낭비 요인을 잘라내지 못하면 평생 시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모든 시간에 가치를 더해 보십시오. 요즘 부쩍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일에 쫓겨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경험으로 자신감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며 꿈을 이뤄나가는 사회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 칼럼

이사 조영인 (일문/94)

말레이 반도의 끝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포르

내가 처음 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없었다. 그다음엔 절반쯤 지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것을 엿고 있었다. 다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이미 머라이언을 누르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어있었다. 마리나베이샌즈 이야기다.

샌즈는 불야성을 이루는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카지노 이름이고,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 남쪽 만의 지명에서 가져왔다. 3개의 기둥같은 건물은 호텔로 사용되고 가장 꼭대기에는 호텔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수영장이 있다. 사이즈와 전망에서 이미 전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 거짓말같은 건축의 힘은 우리나라 쌍용건설이다. 한국인이라서 뿌듯함은 여기에서 느껴본다.

아시아에는 4마리의 용이 산다고 한다. 하나는 대만, 하나는 홍콩, 하나는 한국, 마지막 하나는 싱가포르이다. 장개석이 이광요가 박정희 18년 가까이 독재를 했었고, 장기집권을 했다. 홍콩이야 장기집권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영국의 지배에서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음을 감안한다면 3마리의 용에 해당하는 국가는 성장을 위해 뼈아픈 독재와 장기집권을 감내했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싱가포르의 우리와 닮은 것들도 있다. 2010년부터 F1 개최지이고, 1942년부터 3년간 일본군에 점령되었었고 그 후엔 쪽 영국자치령 안에 있다가 독립을 맞은 건 1965년 8월 9일이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이나 20년 늦게 독립을 한 셈이다. 20년이라는 차이때문인지 싱가포르에는 없는 것들도 있다.

실내 건물내에 담배피는 사람이 우선 없고, 쓰레기가 없고, 모기나 해충같은 것들도 없다. 도로에 주정차된 차들도 없고, 양심을 버리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더더욱이나 없다.

싱가포르의 '부정, 부패는 법과 제도로 척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청렴국가 건설의 비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리관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를 먼저 언급해야 한다.

그는 부패척결에 관한 유명한 말과 일화를 남겼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 고 말하며 '부패를 국가생존의 문제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싱가포르를 마침내 아시아 최고 청렴국가로 만들었다.

싱가פור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아시아에 사회적으로 관

행화된 부패도 척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이광요는 자신의 친구나 장관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는 커녕 장려했다. 1986년 국가개발장관 테칭완이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테칭완은 무고하다면서 이광요 수상을 독대하고 싶어했다. 이광요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 며칠 후 테 장관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고, 유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족들은 문상은 나 수상에겐 故人의 명예를 위해서 부검만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 수상은 부검을 하지 않으려면 자연사를 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사는 테 장관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견서를 냈다.

1995년에 이광요 전 수상의 부인과 아들이 부동산을 5~6% 할인받고 산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판촉용으로 다른 知人들에게도 그런 할인율을 적용했음이 정부 조사로 밝혀졌다. 이 개발회사엔 이광요의 동생이 비상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소문이 나쁘게 돌았다.

이광요 부인은 결백이 증명된 뒤 할인받은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정부에 기증했다. 정부는 이런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돌려주었다. 부인은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지도자의 결심, 엄벌주의, 공무원 대우 개선, 수사기관의 독립성, 깨끗한 선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싱가포르로 하여금 아시아의 부패고리에서 벗어 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장기집권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3S정책이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3C 정책이 있다. 바로, 깨끗한 물 (Clean Water), 깨끗한 거리 (Clean Street), 깨끗한 공직 사회 (Clean Administration)이다.

유엔이 분류한 물기근 국가에 속하지만,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와서 정제하여 사용하고, 남은 물을 말레이시아에 비싼값에 역수출한다. 물이 워낙 깨끗하므로 수도물을 그냥 마셔도 무방하다.

Clean and Green Street 정책을 시행하여 자연환경과 도시 미화를 위하여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해도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으로 공공질서를 강조하고 청결하고 질서정연함을 유지하고, 깨끗하다.

싱가포르의 개혁은 1959년 집권한 리관유(이광요) 수상은 이른바 3C 정책에서 시작하는데, 일벌백계식 처벌과 함께 부패관행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통해 부패감시활동을 강화하



는 강경한 처방책을 쓴 결과 싱가포르의 부패를 척결하게 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들의 청렴함은 유명하다. 당연히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의 청렴함을 고양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높은 보수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우선은 싱가포르 정부가 재정을 흑자 경영하기 때문이고, 또한 능력 지향주의와 정부가 예지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후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싱가פור는 또한, 전세계 쇼핑객들이 무지 좋아하는 곳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쇼핑메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고의 쇼핑지역으로 꼽고있다. 특히 싱가포르 대세일 기간엔 매년 5월 20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는 쇼핑센터 마다 사람들로 미어진다. 그도 그럴것이 싱가포르는 원래 짝퉁이 없는 나라인데다 세일기간엔 최대 70%까지 할인이다. 할인기간이 아니더라도 명품은 홍콩보다 20% 정도가 저렴한데다 독특한 로컬 브랜드까지 있다.

싱가פור는 중계무역과 금융업이 최강세인 도시국가로 동북아시아의 어느 대통령가족이 부정축재한 재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쓰레기 버리기** : 공공장소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S \$ 1,000(9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반복해서 규칙을 어길 경우 벌금 S \$ 2,000(180만원)에 처해진다.
- **침 뱉기**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 **흡연** : 버스 또는 지하철 내부, 박물관, 도서관, 극장, 엘리베이터, 에어컨이 되어있는 음식점, 슈퍼마켓, 미장원, 관공서 등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며 위반시 벌금이 S \$ 1,000(90만원)이다. 단, 가라오케, 디스코장, 나이트 클럽, 맥주홀 등에서의 흡연은 예외이다.
- **공공화장실의 사용** : 화장실을 사용한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 S \$ 150(13만원)에 처해지며, 두번째로 위반하면 벌금 S \$ 500(45만원), 세번째는 벌금 S \$ 1,000(90만원)에 처해진다.
- **무단횡단** : 법률위반이며 벌금은 S \$ 50(45,000원)이다.
- **껌** : 껌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다. 껌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벌금 S \$ 1,000(90만원)에 처해진다.
- **음주**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음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S \$ 1,000(90만원)에 처해지며 반복해서 이 법을 어길 경우 벌금 S \$ 2,000(180만원) 또는 3개월에 처한다. 유효한 기간 내의 면허증없이 운전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시 S \$ 1,000 (90만원)의 벌금과 6개월에 처해진다.



이기식 웃음박사의 사회로 시작~



고석규 총장의 건배제의 "의과대학 유지를 위하여!"



대회를 준비한 동문회 사무처 식구들에게 박수



산행 후 꿀맛같은 점심식사 중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두 모여 한컷~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

승달산 클린등반대회 개최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5월 26일 재경 동문회와 목포대학교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 승달산 등반대회'를 열었다.

특히 재경동문회는 관광버스를 빌려 서울에서 내려와 기다리던 동문들의 환호를 받았다.

클린 승달산 등반대회는 목포대학교 정문에서 모여 승달산까지 짐계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등반로 주위 청소를 실시해 정상에서 점심

시간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사무처에 준비한 점심으로 도시락과 삼합, 그리고 병어회는 산행의 진미였다. 이어 이기식(체육/91) 이사의 사회와 김유현(경영/83) 부회장의 노래로 시작한 작은 산사음악회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클린 등반대회는 한 대장이 2004년 히말라야 K2봉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등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다.



재경동문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진하 동문회장의 감사의 말씀



무역학과 동문 "반창하리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동문의 산사음악회



한잔들 받으시오~



고석규 총장님과 다정하게 한컷 ^^&



교수합창단 교수님의 가곡 한소절



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유후~~~~~

www.mokpofestival.com

Korea  Be Inspired

빛의 향연!! 낭만의 바다!!

2012 목포

바다향연

문화축제

2012 MOKPO MARITIME CULTURAL FESTIVAL

평화광장 및 삼학도 일원 8.3(금)~8.7(화)/5일간



주최  목포시 MOKPO CITY

주관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전남 의과대학 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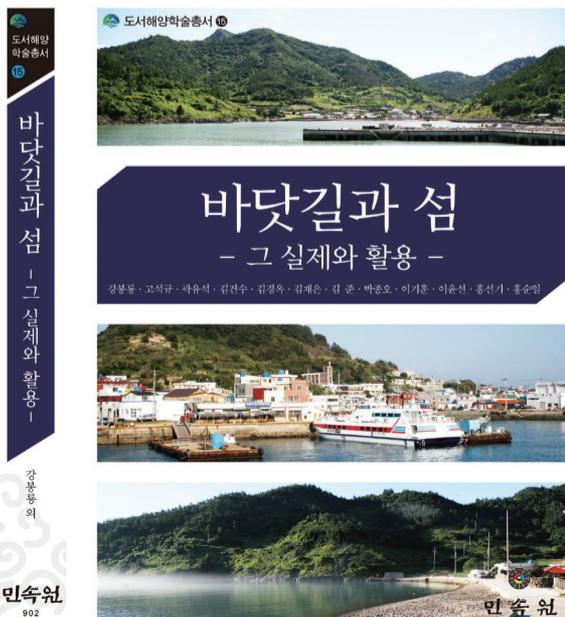
목포대학교는 지난 3월 14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전라남도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는 100만도민의 서명이 모아지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의 이름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절박한 의료 현실을 정부에 호소하여 올해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는 목포대학교 홈페이지(<http://mokpo.ac.kr>) 및 서명운동 창(<http://sign.mokpo.ac.kr>)에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명도 가능하며, 7월 현재 67,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도서문화연구원 발간 '바닷길과 섬' 우수학술도서 선정



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강봉룡 원장은 "작년에 이어 도서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서해양문화학술총서가 계속해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은 이 분야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높이 평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서해양 관련하여 수준 높은 연구출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의의와 포부를 밝혔다.

우수학술도서는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기초학문을 육성 발전시킬 목적으로 해마다 그 전년도에 발간된 모든 신간도서 중 분야별로 우수도서를 선정 발표하는 것으로,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하여 전국 대학과 연구소 등 학술기관에 널리 활용된다.

2011년에도 도서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해로와 포구(도서해양문화학술총서 11, 경인문화사)", "한국어촌사회학(도서해양문화학술총서 12, 민속원)" 2권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에서 발간한 "바닷길과 섬-그 실제와 활용-(도서해양문화학술총서 15, 민속원)"이 201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

목포대 인라인롤러부 박찬영 국가대표 선발



목포대학교 인라인롤러부 박찬영(체육1)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박찬영 선수는 지난 4월 나주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인라인롤러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는 등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인권아 놀자!" 목포대 도서관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목포대학교는 2011년도 기획재정부 신규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소운동장 및 테니스 코트장 주변에 대강당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9,804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강당 시설로는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크기별 회의실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강당 입구에는 녹지, 인공연못 등을, 대강당 우측에는 소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연구, 교육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mart (주)엔투어 **tour01.net**
 목포시 옥암동 915-25번지 이마트 1층
 TEL. 061.273-8225 FAX.061.278-8226

HanaTour 1588-3925 **하나투어**

마카오

7월28일~8월 15일 [수/토 패턴]
 (출발일 기준)

무안 출발 08:00 / 마카오 도착 10:15 [NX9815편]
 마카오 출발 02:30 / 무안 도착 : 06:40 [NX9816편]

수 2박 4일 토 3박 5일 **총6회**

CHPF05_NX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CHPF07_NX 마카오/홍콩/심천 5일 949,000원~

장춘(백두산)

7월10일~8월 25일 [화/토 패턴]
 (출발일 기준)

무안 출발 17:20 / 장춘 도착 18:30
 장춘 출발 13:00 / 무안 도착 : 16:20

수 4박 5일 토 3박 4일 **총14회**

849,000원~

방그문의 TEL(061)284-5064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지난 3월 19일 목포 웨딩팰리스에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15대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장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배려와 솔선하는 리더십으로 동문회원님들과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들까지 결속하자”며 “목포대학교 총동문이라는 테두리 안

에서 단합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원년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장 회장은 “누구보다 더 목포대학교와 총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며 진심어린 애정으로 발전을 도모하는데 미력하나마 한 축을 담당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교와 총동문회 간담회 가져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과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4월30일 다원 한정식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와 연합동문회,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 고석규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고석규 총장은 “목포대학교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전라남도 의과대학의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해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가 목요일 점심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동문모임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점회는 목요일 점심에 만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을 만나 가벼운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문소식이거나 주요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명옥 간사는 “조금씩 목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동문들과 총동문회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점회 참석을 희망하는 동문들은 010-9736-0006로 연락하면 모임 장소 등을 알 수 있다.

목점회를 아시나요?



동문회장 동정 2012년 상반기



- ① 2월22일(수) 목포대학교 학위수여식 참석
- ② 3월19일(월)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장 이취임식 참석
- ③ 4월17일(화) 목포대학교 후원회정기회의 참석
- ④ 4월20일(금) 남악캠퍼스 교육지원센터 기공식 참석
- ⑤ 4월23일(월) 최고경영자과정 22기 원우회 출범식 참석
- ⑥ 4월30일(월) 목포대학교 간담회 참석

2012년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회장 : 유진하(무역/79) 5,000,000원

수석부회장 : 김종국(원육/87) 1,000,000원

고문 : 정계식(지역/80) 1,000,000원
 윤소하(경영/80) 150,000원 황정호(국문/83) 300,000원

부회장 : 박종규(무역/79) 100,000원 고영근(무역/80) 300,000원
 김재기(화학/81) 100,000원 김용기(지역/83) 300,000원
 나훈진(미술/83) 300,000원 오승원(물리/84) 300,000원
 정미희(체육/84) 150,000원 천병식(경영/86) 300,000원
 서정만(경제/87) 150,000원 홍영산(경제/08) 300,000원
 김용민(최경) 300,000원 김하현(대학원) 300,000원

이사 : 정해충(직역/78) 100,000원 강 핵(행정/80) 100,000원
 서재갑(화학/83) 100,000원 김근순(무역/85) 100,000원
 박석룡(원예/85) 100,000원 정미리(원육/87) 100,000원
 엄재훈(원육/88) 100,000원 박권철(무역/89) 100,000원
 양인선(생물/90) 100,000원 이현승(무역/92) 100,000원
 조영인(일본/94) 100,000원 김영석(일본/95) 100,000원
 범은혜(미술/98) 100,000원 조성문(사학/99) 100,000원
 이기식(대학원) 100,000원

회원 : 박지원 100,000원

총 : 37명 계 : 12,900,000원

국민은행 568301-04-026077 목포대학교총동문회

목포대동문회보 20호 발간안내

목포대학교총동문회에서는 동문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년4회(1회 10,000부) 동문회보를 발간합니다. 동문회보는 동문의 일상사(훈인,승진,개업,이전,수상,출판,전시 등)와 학과,지역,직장,동아리,학회별 모임의 행사소식, 모교의 행사소식, 총동문회 주요사업을 실어 크고 작은 애깃거리로 풍성하게 구성하여 동문 여러분들께 알찬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동문회보에 게재하고 싶은 소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취재해 게재 하겠습니다.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보, 더 나아가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4만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061) 284-5064
 팩스 : (061) 284-8339
 홈페이지 : www.mpuob.org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유치 서명운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등록부 서명하기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등록부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박지연	전남 목포시 상동 진동1가11	박지연
2	고석주	전남 목포시 남산로 2번길 2	고석주
3	최태은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최태은
4	정우진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정우진
5	박근영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박근영
6	이명훈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이명훈
7	이윤석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이윤석
8	김서호	목포시 용두동 2번길 2	김서호
9			
10			
11			
12			
13			
14			
15			

본 서명은 의과대학 설립 및 홍보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기획평가과(우:534-729)
전화 : 061) 450-2052.3 팩스 : 061) 450-2057

서명등록부는 인터넷 <http://sign.mokpo.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목포대학교로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명하기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 주소입력후 서명참여

모바일 서명하기



QR코드 인식하여 모바일 서명참여

서명문의 TEL 061-450-2052~3 FAX 061-450-205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의과대학유치 홍보 CF



QR코드 인식하여 의과대학유치 홍보CF 보기

